

민선4기 출범 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오현섭 여수시장

“지중해형 관광레저도시로 지역발전 새 패러다임 구축”

“지중해형 해양관광레저도시 건설로 희망의 여수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것입니다.”

오현섭 여수시장은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에 따라 파리에서 열린 BIE(세계박람회 사무국) 총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취임식을 지난 7일에 야기했다.

오 시장은 전남도 행정부지사 시절부터 지사를 역임한 행정능력을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시정을 통한 30만 시민이 신명나는 여수 건설을 강조했다. 시민 스스로의 자신감 회복을 통해 신명나는 여수 건설이 가능하다고 말한 오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5가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도심생활권 수변공원 개발

“교육분야에 과감한 투자”

극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통합 광역시 건설과 관련 중요한 분수령이 될 시점에서 4단계의 통합 프로그램을 구상중이다.

오 시장은 “1단계로 여수 중심으로 교통을 포함한 동부권 경제통합을 이루고, 2단계는 인접한 경남 남해와 하동을 엮는 남해안권 경제통합, 3단계는 2013년 하계 U대회를 남해안권 8개 시군이 공동개최하고, 궁극적으로 남해안권 8개 시군을 엮는 광역도시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채택된 지역경제활성화의 출구 전략적인 기업유

치를 통해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5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전남 콜센터 유치와 5만여명의 인구유입 효과를 가져올 대기업 계열사의 여수 유치”는 오 시장이 설계하는 ‘2만불 부강 여수 시대’의 초석이 된다.

오 시장은 인사제도 변화와 관련, “내부 업무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국·소장, 실·과장들이 평가도록 해 철저한 책임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며 “책임을 전제로 한 인사권의 이양을 통해 적재적소라는 인사원칙의 기본을 실현할 것이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시장 중심의 시정이 아닌 시민 모두의 참여로 이뤄지는 시정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kwangju.co.kr

황주홍 강진군수

“농어가 소득증대 최선 인구 감소 문제 해결”

“4년동안 열심히 해 임기가 끝나는 2010년에는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라는 ‘꿈의 기록’을 달성하겠습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됐다 재선에 성공한 황주홍 강진군수(54)는 “지난 1년 반 동안 군수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강진도 할 수 있다, 우리 고향도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찾았다”며 “임기동안 농·어가 소득증대에 힘써 현재 4만2천299명인 강진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황 군수는 민선4기 출범과 맞먹는 3기 때의 ‘지금 강진은 변화하고 있습니다-지역경제 개혁, 지역경제 회생’에서 ‘인구감소 해결, 그 꿈의 기록에 도전합니다’로 바꿨다.

황 군수는 군정에 매진하기 위해 휴직상태이던 교수직을 사직했으며, 취임식장에서 “2년 뒤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황 군수는 6월 중순 직원조회에서 인사청탁 근절 방침을 밝히는 한편, 인터넷 국정일기를 통해 청탁자를 영문 이니셜로 공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돈이 오고 가고 힘센 사람을 통한 청탁에 의한 승진이 아니라, 오직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친절하게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 저절로 승진하게 될 것”이라고 인사원칙을 밝혔다.

황 군수는 올해를 농업,임업,축산,수산업 중흥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친환경 생명식품 생산 10개년 계획’에 의거, 2014년까지 4



지역 정치·경제 개혁 실현

농업발전 11대 과제 실천

개 분야 823억원을 투입해 농업발전 11대 과제를 차질 없이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분야 투자도 지난해 5월 강진군민 장학재단을 설립, 연말까지 21억원이 넘는 기금을 조성해 대부분을 학교 교육현장에 투입했고, 올해에도 20억원을 조성해 지역 교육 발전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군수는 “강진의 교육수준을 전남 최고를 넘어 전국 최고로 끌어올려, 젊은 부모와 자녀들이 교육 때문에 고향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난해 유치한 ▲성전 리조트단지 ▲해양조망형 강진 CC ▲녹차 테마파크 ▲태양광 발전소 조성사업 등 2천700여원의 민간투자를 비롯, 올해 ▲문화복지타운 조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천200여억원의 BTL(민간자본 유치사업)도 유치하게 되면 고용창출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군수는 ‘남도답사 일번지’ 강진의 관광 경쟁력을 격상시키기 위해 ▲다산박물관, 동문생 주막복원 등 다산 정약용 선생 관광수요 창출 ▲고려청자 도요지 일대 개발과 도예산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대구면 청자도요지와 도암면 다산정약용선생 유적지를 연결하는 망호리~가우도~저두리간 인도전용 출렁다리(길이 1km)는 세계적 명물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kwangju.co.kr

조형래 곡성군수

“친환경·수출 농업 육성 지역경제 살리기 힘쓸 터”

“지난 8년 동안와 신상담하면서 다졌던 각오를 지역경제 살리기에 바치겠습니다.”

조형래(56) 곡성군수는 지난 1995년 무소속으로 초대 민선군수에 당선되는 영광을 이뤘으나 이후 두차례 군수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었다.

조 군수는 “주민의 70% 이상이 농민으로 농업이 주 소득원인 곡성군의 활로를 농업에서 찾겠다”며 “전혀 농가가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망을 확대해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농업기술센터 본래의 기능을 환원시켜 친환경 농업·수출농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업개발 예산을 현 수준의 2배인 350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행정에서 책임져 주는 브랜드 보증 및 손해보전제 시행, 특수 대형농기계 임대은행 설립, 농정기획단 설치 운영 등 획기적인 농업정책을 펴 나간다는 것이다.

“풍요로운 곡성, 살맛나는 곡성, 힘 있는 곡성 건설”을 군정 운영 방향으로 잡은 조 군수는 “한마디로 농민들이 잘 살고 주머니가 든든해야 술 한잔, 밥 한끼라도 지역 상가에서 사 먹고, 이로 인해 상가 또한 살아나게 된다”며 “엄청난 예산과 장기적 사업기간을 필요로 하는 문화·관광사업은 순차적으로 하고, 농업 우선 정책을 추진해 농민과 농업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농업 예산 350억으로 확대

“살고 싶은 고장 건설 박차”

강조했다.

조 군수는 이어 “농업 시장개방에 적극 대처하면서 비즈니스를 통해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해 젊은이들이 더 이상 곡성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와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민선 1기 군수직을 맡았던 경력과 토박이 농민운동가로 어려운 곡성경제 활성화와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조 군수는 “심정, 기차마을사업, 좋은 학교 만들기 등 시책은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자녀교육 지원사업을 전일교육을 통한 실력배양으로 가정-학교-사회를 연계시키는 인성교육의 장이 되게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일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조 군수는 “군수는 군민들의 큰 머슴이고 공무원들은 작은 머슴으로 군민 위에 군림하기 위한 존재들이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자신의 이득을 쫓아다니는 정치공무원이나 부패공무원을 배척하고 군민을 위한 헌신을 참 봉사라 여기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공무원에게 능력이 맞는 대우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kwangju.co.kr

교유가시대 신기술 태양열 난방 온수기!!

물을 매체로한 태양열 난방 온수시스템

▶ **설치비용도**
주요 설비가구, 공압, 기록서, 기온-수온, 하판, 출구시공 등
▶ **수상30미만**
▶ **신학술 설치**
▶ **설치가구달**
▶ **100%절전** 지원
▶ **설치비용기간**
7.5~7.20

1000-369-1800
1000-242-7704

대덕솔라

홍스제이스

이태리가구 전문점

▶ **홍스제이스가** 열거 10년째, 100% 한국산 재료 사용
▶ **홍스제이스가** 100% 한국산 재료 사용
▶ **홍스제이스가** 100% 한국산 재료 사용
▶ **홍스제이스가** 100% 한국산 재료 사용

공구 장동권터러 (061-261-0000) | **스마트** (021-120-7200)

스포츠 아플렛 (021-120-7200) | **다이나나 명품관** (100459.com)